

값진 '인연' 남기고 떠난 '한국 수필의 아버지'

'국민 수필가' 금아(琴兒) 피천득(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25일 밤 11시40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7세. 폐렴을 앓아오던 피 교수는 최근 병세가 악화돼 지난 10일부터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피 교수는 20여년 전 "다 이상 산문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부인(90)과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난 피 교수는 중국 상하이 공보국 중학을 거쳐 1937년 호경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일제 강점기에 경성중앙산업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수를 거쳐 광복 후인 1946년부터 1974년까지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피천득은 일상의 평범한 소재를 서정적이고 섬세하면서도 간결한 문체로 풀어낸 한국 수필문학계의 대표 작가다. 특히 대표작 '인연'은 자신이 열일곱 되던 해부터 세 차례 접한 일본 여성 아사코와의 만남과 이별을 소재로 한 것으로, 학창시절 교과서에 실린 이 작품을 읽고 자란 세대들에게는 설렘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첫 사랑의 대명사가 됐다.

2002년에는 수필의 실제 주인공인 아사코를 소개하는 내용이 국내에서 방송됐을 정도였다. 수필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피 교수는

국민수필가 금아(琴兒) 피천득 선생 별세



서정적이고 섬세한 문체로 국민들 심금을 울려 시인으로 등단... '인연' 수필론 '수필' 교과서 실려

지난 1930년 신동아에 '서정소곡'이라는 제목의 시로 등단한 시인이었다. 이후 잡지 '동광'에 시 '소곡'(1932년), 수필 '눈보라치는 밤의 추억'(1933년) 등을 발표했다. 그의 대표작은 일본인 여

성과의 만남과 이별을 소재로 쓴 '인연'과 수필 형식의 수필론 '수필' 등이며, 국어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수필집 외에 시집 '생명', 소설 '은전 한 낱', 번역서 '내가 사랑하는 시', '소

네트 시집', 평론 '노산시조집을 읽고', '춘원선생' 등을 남겼다. 인촌상(1995년), 은관문화훈장(1999년) 등을 수상했다.

피 교수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동료 문인 등 지인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해인 수녀는 피 교수가 자신의 생일(5월29일)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슬퍼하며 "말린 꽃으로 장식한 '꽃 카드'를 택으로 보냈는데, 못 받고 돌아가시다니... 하지만 당신이 '오월'이라는 글에 쓴 것처럼 오월 속에 진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장영희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는 "선생님은 나이 칠십이 넘으면 글에 욕심이 들어간다고 글을 안 썼다"며 "참 순수한 분이였다"고 회상했다.

소설가 박완서씨는 "사람이 저렇게 늙을 수도 있구나"라고 그 분의 늙음을 기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즐거웠다"며 "연세와 상관없이 소년처럼 무구하고 신선처럼 가벼워 보였다"는 말로 애도했다.

고인과 인연을 맺었던 출판사 썬더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파주출판단지에 새로 임주하게 될 사옥에 '피천득의 방'을 만들 계획이다. 방은 고인이 아끼던 책, 안경, 메모 노트, 좋아하는 작가와 배우 사진 등 서재를 그대로 옮겨서 꾸며지게 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피천득 선생 연보

- ▲1910년 5월29일=서울 출생
- ▲1923년=서울 제일고보 입학
- ▲1926년 =상하이로 유학. Thomas Hanbury Public School에서 수학
- ▲1929년=상하이 호경대학교 예과(豫科) 입학
- ▲1931년=호경대학교 영문학과 진학
- ▲1937년=호경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서울 중앙산업학교 교원
- ▲1945-1946년=경성대학교 예과 교수
- ▲1951년=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1960년='금아시문선(琴兒詩文選)'(경문사) 출간
- ▲1974년=서울대학교 교수 퇴직
- ▲1991년=대한민국 문화예술포럼 은관문화훈장
- ▲1993년=시집 '생명' '삶의 노래-내가 사랑하는 시, 내가 사랑하는 시인'(동화사) 출간
- ▲1996년=수필집 '인연', 번역시집 '세익스피어 '소네트 시집'(썬더) 출간
- ▲1997년=미수(米壽) 기념 '금아(琴兒) 피천득 문학 전집(전 5권)'(썬더) 출간
- ▲2003년='산호와 진주와 금아'(썬더) 출간
- ▲2006년 = '인연' 러시아어판(모스크바대 한국학센터) 출간



'거미인간'에 묶인 오월 광주

2007년 5월 대중문화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스파이더맨 3'다. 지난 1일 전국 800여 개 스크린에서 개봉된 이 미국영화는 개봉 20여 일 만에 관객 457만 명을 끌어들이는 괴력을 과시했다. 단숨에 한국영화계를 초토화 시키며 블록버스터의 스크린 독과점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5·18 주간'인 지난 18일 광주 상무CGV에서는 5·18을 소재로 한 대작 '화려한 휴가'의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화려한 휴가'는 한국 현대사에 치우치지 않은 상처로 남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른 작품이라는 점에서 제작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여기에 안성기, 김성경, 이요원, 이준기 등 내로라하는 스타배우들과 총 1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돼 일찌감치 총무로에서는 2007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이날 제작보고회에서 대구 출신의 김지훈 감독은 "(당시 방관자였던 사실을) 참회하는 심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며 "오는 7월28일 개봉되는 이 영화가 5·18의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 감독의 말에서 설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필이면 영화 개봉이 5월이 아닌, 7월이냐는 것이다.

물론 제작일정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무려 100억 원이나 쏟아붓는 대작을 찍으면서 개봉시기를 미리 예상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

더욱이 마케팅의 기본을 아는 제작사라면 5·18 주간을 전후로 개봉날짜를 잡는 것이 분위기를 타는데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휴가'의 개봉이 7월인 이유는 뭘까?

다름 아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피카기 작전이다. '스파이더맨 3'을 시작으로 '캐리비안 해적 3', '슈렉 3' 등이 5~6월에 개봉하는 바람에 흥행에 부담을 느낀 제작사가 개봉일을 뒤로 미룬 것. 이미 촬영을 마치고 카운트 다운만 남은 상태였지만, 도저히 할리우드 대작들과 맞설 배짱이 없어 지레 진검승부를 포기한 것이다.

비단 '화려한 휴가'뿐만이 아니다. 총무로에는 티켓과워를 자랑하는 인기스타들이 주연을 맡은 대작들도 할리우드 대풍을 피하기 위해 개봉 날짜를 늦추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만약 '화려한 휴가'가 올 5월 스크린을 통해 관객과 소통했다면 어땠을까? 다른 건 몰라도 광주의 오랜 숙원인 '5월의 전국화'를 앞당기는데 적잖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스크린 속 영화는 5월을 '정면'으로 다뤘으니, 스크린 밖에서는 정작 5월을 '비껴가' 상황 이 아이러니 할 뿐이다. 아무리 할리우드의 기세가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한국영화가 어찌다 이 정도까지 됐는지, 참...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여류화가회 '이웃사랑전'

30일까지 무등갤러리

광주전남 여류화가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자선전시회를 마련했다. 광주전남 여류화가회(회장 이해경)가 오는 30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이웃사랑전'을 개최한다.

조순·모자자정을 돕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회원들은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이 부담없는 가격에 그림을 소장할 수 있도록 모든 작품 가격을 40만원으로 정했다.

참여 작가는 강숙자, 고윤숙, 광복심, 김영순, 노정숙, 박소빈, 박선미, 송차자, 신수정, 윤보숙, 임경옥, 정미희, 정순이, 진스하, 조미영, 최강희, 함영순,



이해경 작 'Lotus008'

기옥란, 서경란씨 등이다. 여류 화가회는 전시를 마감한 뒤 수익금 전액을 광주시 동구에 거주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문의 062-228-6625.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구름이 머무는 사찰' 운주사

박하선씨 사진집 '천불천탑' 내 7월 8일까지 전시회

운주사의 매력에 이끌려 10여년 동안 절집과 천불동 계곡에 있는 불상들을 영글에 담은 사진작가 박하선씨가 그동안 작업을 결산하는 사진집 '천불천탑'을 펴냈다.

박씨는 운주사 산야에 놓여있는 불상들의 표정과 사계절을 흑백영상으로 수록했다. 그의 필름에 담긴 수백개의 불상은 저마다 민초들의 염원과 불성을 간직한 석불로 그려진다. 산등성이와 들에 흩어져 있는 불상들을 찾는 작가의 시선은 그저 평범하게 불상을 살피던 일반인들에게 새로운 부처의 표정을 엿보게 해준다.

사진집 출판 기념회는 다음달 2일 운주사 경내에서 열린다. 박씨는 사진집 출간을 기념해 운주사 갤러리에서 오는 7월8일자



지 사진전을 연다.

'대양', '실크로드', '티벳' 전 등 9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2006년 대구 사진비엔날레 주제전에 참가했다. 작품집 '삶의 중간보고서', '천장', '문명 저편이 아이들' 있으며,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중이다. 문의 011-9608-146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아메리칸 코너 영화축제

29일 음악다큐 '더 블루스' 상영

광주아메리칸 코너 영화축제가 29일 오후 3시 무등도서관 내 아메리칸 코너에서 열린다.

상영작은 음악다큐멘터리 '더 블루스-솔 오브 맨(The blues-The Soul of a Man)'. 빔 밴더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번 작품은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인 블루스 뮤지션인 스틱 레인즈 등의 삶과 음악을 통해 미국 음악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영화다.

영화 상영 후에는 로버트 오그먼(주한미 대사관 공보참사관 직무대행)씨의 해설과 토론 시간이 마련된다.

참가비 무료이며 예약 문의 062-251-44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원단약국사거리 ♥에메이544-0600

M관 캐리비안의 해적3: 세상의 끝에서 (12세/디지탈) 최고급관

2관 캐리비안의 해적3: 세상의 끝에서 (12세)

3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4관 넥스트 / 스파이더맨3 (12세)

5관 캐리비안의 해적3: 세상의 끝에서 (12세)

6관 전설의 고향 (12세)

7관 슈츠 더 맨 (12세)

8관 밀양 (15세)

9관 캐리비안의 해적3: 세상의 끝에서 (12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주차장이 편한 극장 —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밀양 (15세)

2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3관 눈물이 주룩주룩 (12세)

4관 스파이더맨 3 (12세)

5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6관 날아라 허둥구 (전체) / 넘버23 (15세)

7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금,토(2일간) 심야상영

*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대 <3시간 무료> *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

향토시영 영화시영 *에메:www.joycbs.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미지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 뒷편)

1관 넥스트 (12세)

2관 <어린이전용관> 저하늘에도 슬픔이 (전체)

3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12세)

4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12세)

5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6관 밀양 (15세)

7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12세)

8관 전설의 고향 (12세)

9관 스파이더맨 3 (12세)

10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12세)

*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 (107관) 점선리 상영중 상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 → 0번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스파이더맨 (12세)

2관 밀양 (15세)

3관 캐리비안 해적 (12세)

4관 캐리비안 해적 (12세)

5관 캐리비안 해적 (12세)

6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7관 극락도 살인사건 / 눈물이 주룩주룩 (12세)

8관 넥스트 (12세)

9관 전설의 고향 (12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타임스퀘어 회원만을 위한 전용주차 미연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팅 사용 가능

새로운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icinema.co.kr*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2관 밀양 (15세) /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3관 넥스트 (15세) /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4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5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6관 스파이더맨 3 (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주차타워)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